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기술개념 및 국내외 최신 동향 소개

현정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는 민간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대응, 자국통화의 국제화, 거액 및 소액 결제시스템 혁신, 금융포용 등 다양한 동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연구 및 발행 준비 작업 중에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CBDC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 및 결제성 예금과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중앙은행화폐를 뜻한다. 따라서 실물화폐인 현금과 사적화폐인 요구불예금과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채무에 해당한다. CBDC는 발행대상에 따라 거액(wholesale)과 소액(general purpose or retail), 유통방식에 따라 간접방식과 직접방식, 발행방식에 따라 계좌방식(account-based)과 토큰방식(token-based), 구현방식에 따라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효율성과 안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 중이지만, 소액결제에 한정해서 볼 때 간접방식, 토큰방식, 분산원장방식(허가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 방식을 채택할 경우 가장 실물현금과 유사하며 중앙은행화폐의 성격(예: 결제완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물현금과 동일한 수준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익명성은 실물현금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익명성 보장에 따라 테러자금 지원, 불법자금 유통에 CBDC가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ECB, 미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스위스중앙은행, 스웨덴중앙은행이 참여하여 CBDC 발행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합의하였는데, i) CBDC 발행으로 통화 및 금융 안정이 저해되서는 안될 것, ii) CBDC는 기존 화폐와 공존하며 기존 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질 것, iii) CBDC는 혁신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결제은행이 2020년 4분기에 실시한 65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의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거나 발행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digital dollarization 등을 CBDC 발행 준비 이유로 꼽았다. 거액결제용 CBDC는 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국가간 지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태국중앙은행과 홍콩통화관리국은 2019년부터 Inthanon-LionRoc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는 태국과 홍콩 내 상업은행간 지급 및 외환결제가 한 국가 내에서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분산원장과 거액CBDC를 활용하여 양국의 결제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BDC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2020년 10월 바하마(Bahamas)는 소액 및 거액 결제용 CBDC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다. Sand dollar라고 불리는 바하마의 CBDC는 국내용이며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토큰 및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은행도 CBDC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올해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CBDC 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액 및 소액 모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액의 경우 아세안+3 국가와 함께 CBDC bridge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내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과 해외 중앙은행간 연구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